

# 시 '홍역'에 살충제 '대란'... 누란의 위기 전전공공

르포 - '살충제 계란' 나주시 공산면 양계시범단지 가보니...

사무실 닫히고 농장주 자리비워... 수거 못한 계란만 차곡차곡

“판로 풀길까 걱정 나주 산란계 농장 전체 매도당하지 않았으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나주지역 산란계 농장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나주 A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4시께 나주시 공산면 양계시범단지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단지 내에서 만난 농장주들은 ‘우려 반, 걱정 반’의 목소리를 내면서 단지를 찾은 취재진들에게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B농장주는 “살균은 하고 들어왔으나, A농장만 사진을 찍고 다른 곳은 찍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번 파문이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인 항의였다.

현재 단지 안에는 산란계 농장인 ‘A농장’을 비롯한 8개의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A농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품안전 살충제 검사에서 지역 최초로 비렌트린이 초과 검출된 곳이다. 이들 계란농장은 산란동 30개를 운영 중인데, 광주·전남 마트 등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단지 안 A농장 산란동(가로 20m·세로 80m)의 외벽은 검은 때가 묻어 있었다. 외

벽엔 ‘방역상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발판소독조’ 등의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무실도 닫힌 채 농장주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가로·세로 1m 크기의 환풍구를 통해 들어다본 산란동 내에서는 3층짜리 철재 케이지(가로·세로 30cm)속에서 닭 7만여 마리가 힘없이 모이를 쪼고 있었다.

단지 내 산란계 농장주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침뚫힌 표정을 지었다. 또 A농장주가 살충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향후 계란공급에 대한 걱정도 쏟아냈다.

A농장 주변에서 일하는 C씨는 “오전에 A농장 대표를 만났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많이 괴로워 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아무리 케이지를 소독하고 비눗물로 세척한다고 해도 닭들에게 진드기나 이가 생긴다. 이번 일로 나주 산란계 농장 전체가 매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A농장 저장고엔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일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17일 업무와 협의해 보관 중인 계란 전량을 회수·폐기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B씨는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경우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는 다른 농장들의 계란 판로까지 막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점점 계란이 쌓여갈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16일 오후 나주시 공산면 한 산란계 농가의 좁은 철망 안에 닭들이 빼곡히 모여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닭 진드기 박멸용으로 쓰이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21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친환경도 못 믿겠다” 인증제도 재점검 불가피

나주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양계 농장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나오면서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인증서 발급 위탁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3000마리 이상의 닭을 사육하는 99개 양계농장 중 78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문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장에서 여름철 진드기 박멸을 위해 살충제를 사용했는

데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과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담당하다가 올해 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3일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전부 이관됐다. 민간인증기관이 농가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을 부여하면 농관원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은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뒤따라야 함에도 위험요소가 있는 축사와 표본조사 등만 시행돼 왔을 뿐 전체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

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로 계란을 넘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다른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농관원 전남지원이 올해 유기·무농약 인증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2만 4000여농가 3만7000ha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에서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601곳(면적 1246ha)이었다. 이 중 상당수 농가가 주로 유기합성농약(제초제)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대대적인 친환경 부실 인증으로 파동을 겪은 이후에도 인증 위반사례

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조차 하지 못한 채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과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주부 김모(여·42·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씨는 “아이들 때문에 비싸더라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을 구입해왔다”며 “떡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매년 커지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 관리조치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文 “계란 전수 조사”...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폐기”

李 총리 “18일 정상 유동”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되는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62%의 농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며, 늦어도 모레면 문제 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다”며 “오늘까지 전체 유통량의 25%에 해당하자는 ‘문제없음’으로 판정된 계란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며, 내일이면 50%가 넘을 것이고, 모레면 거의 100%가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3) 계란

“대낮 골방에 차박하 시를 쓰다가/문밖 확성기 소리를 엿듣는다/계란...(짧은 침묵)/계란 한 판...(긴 침묵)/계란 한 판이, 삼켜버린 계란...(침묵)계란 한 판/이게 전부인데/~/인아 바쳐 생긴/생계의 운율/계란 한 판의 리듬/쓰던 시를 내려놓고/덜컥, 삼천 원을 들고 나섰다”(고영민 작 ‘계란 한 판’중에서)

계란 한 개로 간략한 한 끼를 해결하

## 음식이요 詩요 그림인 계란에 살충제라니...

기도 하는 우리 식탁이 요즘 불안하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뉴스를 보며 설마 했는데 일부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파동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서양미술에서는 우리 삶의 토대로서 음식이나 다양한 식재료, 부엌의 모습이 오랜 세월 예술가의 창작을 섬세하게 하는 모티프로 자주 등장했다. 달리, 피카소, 세잔, 마네, 고흐는 말할 것도 없고 클레 스 울덴버그, 제임스 로렌퀴스트 등 팝아트에서도 음식이 주인공이 되어 다양하

게 묘사되는 등 시각과 미각을 함께 자극하는 작품을 흔치않게 만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얼마 전, 뉴욕시립대 대학원 메리 앤 코즈교수는 저서 ‘모던 아트 룩북’에서 예술가가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음식 그림과 그들의 이성적 감성을 자극한 예술적 레시피들을 모아 엮어내기도 했다. 이 책을 넘기다 만난 윌리엄 스코트(1913~1989)의 그림 ‘대접, 계란과 레몬’(1950년 작) 속 계란이 오늘날과 흡사하게 보인다.

우묵한 그릇에 담긴 계란과 몇 개의 레몬, 작은 접시에 올려진 몇 알의 올리브가 막 요리를 시작하려는 설렘으로 다



윌리엄 스코트 작 ‘대접, 계란과 레몬’

가운다. 청색과 흰색 배경 속 계란이 유난히 신선해 보여, 계란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상상해보게 한다. 영국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화가는 이 작품처럼 간결한 형태와 구성의 정물화를 잘 그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처·미술사박사>

#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